

부모갈등 지각이 초등 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 거부·제재 양육지각, 반추, 사회불안을 매개로*

김 수 정

정 윤 경[†]

박 현 식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운유초등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갈등지각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서 거부·제재 양육지각, 아동의 반추 및 사회불안과 어떤 직·간접적인 연계성을 보이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 290명과 아동의 담임교사들이다. 부모갈등 및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 반추적 반응과 사회불안은 아동 보고로 측정하였고, 학교적응은 아동의 각 담임교사들의 보고로 측정하였다.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갈등 지각은 반추적 반응 및 사회불안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학교적응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갈등지각, 반추, 그리고 사회불안 매우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학교적응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각 변인들이 학교적응에 주는 직·간접적 연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증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갈등지각은 거부·제재 양육지각, 반추적 반응, 그리고 사회불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었다. 반추는 사회불안에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불안은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갈등은 거부·제재 양육, 반추적 사고 및 사회불안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거부·제재 양육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반추적 반응은 사회불안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이 제안되었다.

주요어 : 부모갈등, 거부제재 양육, 반추적 반응, 사회불안, 학교적응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3937).

[†] 교신저자 : 정윤경,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E-mail: benijeong@catholic.ac.kr

부모갈등은 아동의 발달적 결과에 중요하게 관련되는 요인으로 아동의 행동문제 등을 포함한 적응문제와 일관되게 관련되어 왔다(Davies, Forman, Rasi, & Stevens, 2002; Goeke-Morey Papp, & Cummings, 2013; Rhoades, 2008). 가령, 부모갈등에 계속적으로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들은 정서, 행동 그리고 인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반응스펙트럼에서 부정적인 발달적 결과를 보였다(Cummings & Davies, 2010).

Grych와 Fincham(1990)의 “인지-맥락 모형”에서는 부모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아동이 갈등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지각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즉 부모갈등의 실제적인 양상보다는 아동이 이것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느냐가 심리적 적응과 더 관련을 보인다는 것이다. Grych와 Fincham(1992, 1993)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갈등의 빈도나 위협정도, 그리고 갈등내용 등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평가가 아동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 다른 연구(Fincham, Grych & Osborne, 1994)에서도 실제 부모갈등 정도보다 갈등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처리과정인 아동의 장기적인 적응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인지-맥락 모형과 일치하여(Grych & Fincham, 1990; Grych, Fincham, Jouriles, & McDonald 2000), 아동들이 부모갈등을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하거나 또는 부모갈등에 대처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불안과 무기력을 느끼면서 내재화 행동문제(Grych, Fincham, Jouriles, & McDonald, 2000; Grych, Harold, & Miles, 2003)뿐 아니라 부정적인 심리적 발달을 야기 시킬 수 있다. 가령, 아동이 부모갈등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거나

또는 갈등에 대처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아동은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에 대한 낮은 가치감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었다(Rogers & Holmbeck, 1997).

Davies와 Cummings(1994)의 연구에서도 부모갈등을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은 가족관계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부모 간 갈등이 자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는 아동은 슬픔, 무기력, 수치심 등을 더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Grych & Fincham, 1993). 반면, 부모갈등을 멈추게 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는 아동은 더욱 파괴적이거나 공격적 행동에 관여하면서 외재화 문제를 발달시켰다(김민정, 도현심, 2001; Buehler, Lange, & Franck, 2007; Gerard, Buehler, Franck, & Anderson, 2005).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발달적 결과들은 아동의 학업적 성취에도 영향을 주면서(Long, Slater, Forehand, & Fauber, 1988) 전반적으로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이운주, 2004; Grych & Fincham, 1993).

이와 같이 부모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아동발달에 중요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권영옥, 이정덕, 1997; Kitzmann & Cohen, 2003; Vanderwater & Lansford, 1998). 특히 부모갈등 영역에서도 부모갈등을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것, 갈등 원인을 자신 탓으로 지각하는 것, 그리고 갈등에 대해 대처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것 등(Grych & Fincham, 1993)의 하위 영역들이 아동적응과 일관되게 관련을 보였다(Grych, et al., 2000; Grych, et al., 2003). 따라서 현 연구에서도 부모갈등의 하위 영역 중, 갈등을 자기 탓으로 지각하는 자기비난 및 갈등내용, 갈등에 대한 위협적 지각, 그리고 갈등에 대한 대처여부 등의 하위 영역을 가지고 이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발달적 결과 간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러한 관련성이 총체적으로 아동의 학교적응과 어떠한 직·간접적인 연계성을 보이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부모갈등은 부모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양육행동이나 양육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노지형, 송현주, 2007). Davies와 Cummings(1994)는 부모갈등이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Belsky(1981)의 연구에서는 부모갈등이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주었다. 즉, 부부갈등으로 무기력해진 어머니는 아동에게 부정적으로 대하거나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서 아동의 행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아울러 아동은 사회적으로도 위축되면서 부적응적인 발달적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또 다른 연구(Fincham, et al., 1994)에서는 부모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통제적 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되는 간접적인 영향을 비교한 결과, 부모갈등은 아동의 내재화 부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외재화 부적응에는 여아의 경우에만 통제적 양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부모갈등은 아동의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양육행동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Cummings, Davis, & Campbell, 2001).

앞서 언급되었듯이, 부모갈등에 대한 아동 지각이 아동의 발달적 결과에 더 중요한 예측요인이 되었다. Osborne와 Fincham(1996)은 양육행동이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지각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더 중요하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제안하였다(Harold, Fincham, Osborne, 1997). 즉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문제를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어떠한 관련을 보일 수 있다.

이민식(1999)에 의하면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부정적 양육태도 간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부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내재화 및 외재화 부적응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처럼 부모 간 갈등을 지각하는 아동들은 부모의 양육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런 부정적 지각이 아동의 적응문제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부모갈등에 대한 아동의 반응양식으로 반추적 사고가 제안되었다. Davis와 Forman(2002)은 지나치게 한 가지에 몰두하거나 걱정을 반복적으로 되씹는 반추적 반응이 부모갈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생기는 부산물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 진행된 연구(Johnson, Carr, & Whisman, 2015)에서 보면 반추적 반응이 부부갈등에 대한 지각된 위협과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관련을 보였다.

반응양식이론에 의하면 반추적 반응은 고통스런 증세에 초점을 두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소극적으로 고통에 반응하는 양식으로서, 그리고 이런 증세의 원인과 결과에 초점을 두고 반응하는 양식으로 정의된다(Nolen-Hoeksema, Wisco, & Lyubomirsky, 2008, p.400). 이러한 반추적 반응은 아동 중기 때 자기보고로 측정될 수 있으나, 청소년기 초기가 되어서야 부적응적 문제를 예측한다고 보고되고 있다(Rood, Roelofs, Bogels, Nolen-Hoeksema, & Schouten, 2009).

Johnson등(2015)의 연구에서는 부모갈등에 대한 위협적 지각이 반추적 반응과 관련되었고, 이러한 위협적 지각은 반추를 통해 이후

우울성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부모갈등에 대한 아동의 평가와 반추적 반응은 아동의 적응문제와 관련을 보였고(Rhoades, 2008 참조), 이후 삶에서 부 적응적 결과를 예측했다(Cummings, George, McCoy, & Davies, 2012; Cummings, Schermerhorn, Davies, Goeke-Morey, & Cummings, 2006; Goeke-Morey et al., 2013).

반추적 반응은 부모갈등 뿐 아니라 부정적인 양육행동과도 관련을 보인다. Hilt, Armstrong, 그리고 Essex(2012)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 초기에 높은 수준의 통제적 양육에 노출된 아동들은 성인기 때 반추를 더 많이 하였다. 또한 아동기 때 과 통제적인 부모를 가졌다고 보고한 대학생들이 성인기 때 반추에 더 관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반추적 반응은 아동기 부모갈등에 대한 혐오스런 경험과 성인기 우울 간 연계성을 중재하였다(Spasojevic, & Alloy, 2002).

지금까지 부모갈등, 양육방식, 반추적 반응 간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부모갈등은 부정적인 양육방식과 반추적 사고를 매개로 부 적응적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아울러 부정적인 양육행동도 반추적 사고를 매개로 적응문제와 관련을 보일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부모갈등지각은 아동의 사회불안과도 관련을 보인다(Cummings et al., 2003). 부모 간 갈등이 자기 때문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은 수치심과 자책감을 느끼면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사회불안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사회불안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으로 간략히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불안은 주로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동기부

터 발달한다(Degnan, & Fox, 2007).

부모갈등과 자녀의 사회불안 간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갈등은 아동의 대인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이므로,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아동의 대인불안이 높다고 보고되었다(김은향, 2005). 또한 부모갈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일수록 사회불안이 높았으며(호유나, 2005), 부모갈등의 양상에 따라 부모 갈등 중에 나타나는 공격성이 아동의 불안과 관련되었다(Cummings et al., 2003). 특히 사회불안은 아동기나 청소년기 학업성취도를 낮추고 또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허재홍, 2006; 조용래, 1998; Stein, Walker, & Forde, 1996). 이런 맥락에서 사회불안은 아동의 학업 수행 및 학교생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 적응과 긴밀하게 관련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기 사회불안은 부모갈등 외에도 부적절한 양육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허재홍, 2006). 특히 부모 중 아버지가 거부적인 양육 태도를 가졌을 때 자녀들은 사회불안을 느끼면서 대인관계를 잘 하지 못했다(Arrindell, Kwee, Methorst, Van Der Edne, Pole, & Moritz, 1989).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Stark등(1990)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거부나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들은 높은 수준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 따라서 부모의 거부 및 통제적 양육 방식이 자녀의 사회불안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불안은 반추적 사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Clark와 Wells(1995)에 의하면 반추과정은 불안한 느낌, 부정적 자기지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과거의 사회적 상황을 더욱 부정적으로 기억하게 하여 사회불안을 유지시키는 핵심 기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반추적 사고는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한 불안, 부정적 자기지각, 부정적 회상 등을 증가시켜 사회불안을 발생, 유지,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갈등을 위협적으로 느끼면서 그러한 갈등에 대해 어떠한 대처능력도 없다고 지각하는 아동들은 부모갈등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을 반복적으로 반추하면서 사회불안을 발생, 유지 및 심화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로 부모갈등은 총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서, 행동 그리고 인지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발달적 결과와 부정적으로 관련되므로(이운주, 2004; Cummings & Davies, 2010; Goeke-Morey et al., 2013), 아동의 학교적응과도 관련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부모갈등은 양육방식(이민식, 1999; Osborn & Fincham, 1996; Harold et al., 1997), 반추(Johnson, et al., 2015) 및 사회불안(김은향, 2005; Cummings, et al., 2003)을 매개로 학교적응과 관련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부정적 양육 방식은 반추적 반응(Hilt, et al., 2012) 및 사회불안(허재홍, 2006; Arrindell, et

al., 1989)을 매개로 학교적응과 관련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 시기 발달될 수 있는 아동의 심리적 특성으로, 반추적 반응과 사회불안을 측정하고 이러한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으로 부모갈등과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 지각을 측정하여 학교적응 간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학교적응 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아동의 반추적 반응을 측정하여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탐색은 학교적응과 관련된 초등 고학년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새로운 탐색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아동후기가 시작되는 초등 4학년 시기는 청소년기로의 전이시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써 이 시기 학교적응은 이후 청소년기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기민희, 김미숙, 2014; Huston & Ripke, 2006), 좀 더 심도 있게 탐색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갈등이 초등 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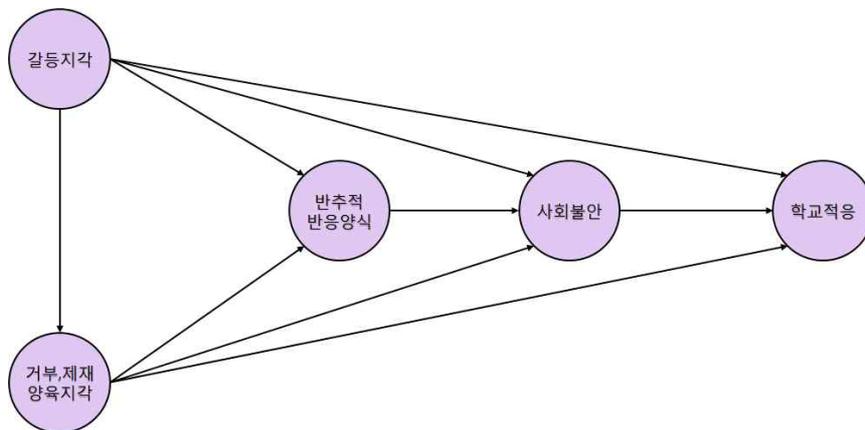


그림 1. 갈등지각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모형

직·간접적인 경로와 변인들 간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은 아동의 담임교사를 통해 측정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학교적응을 측정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연구문제를 알아 볼 것이다. 첫 번째로 부모갈등지각, 양육지각, 반추적 반응, 사회불안, 학교적응 간에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가? 두 번째로 부모갈등이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에서 변인들 간에 어떠한 연계성을 보이는가? 마지막으로 부모갈등이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에서 변인들 간에 어떤 직·간접적인 효과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모집절차

연구대상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만 10세) 288명과 아동의 각 담임교사들이다.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여러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선생님 및 담임교사들의 동의하에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선 각 아동의 가정에 연구관련 설명서 및 연구 참여동의서를 보낸 후, 참여의사를 밝힌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모갈등지각, 양육행동지각, 반추적 반응, 사회불안은 아동들의 보고로 측정되었고, 학교적응은 아동의 담임교사들을 통해 측정되었다. 설문지에 참여한 약 288명의 아동 중,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특수아동 일부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아동 등 19명을 제외한 총 269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으로는 남아가 119명(44.2%)이고 여아가 150명(55.84%)이다. 형제 순위는 첫째가 44%, 중간이 11%, 막내가 28%, 외동이 16.7%이다.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가 42세(SD=3.65, 범위: 34-57세)이고 어머니는 41세(SD=3.22, 범위: 32-53세)이다. 가정의 경제사정은 매우 잘 산다가 27.9%, 잘사는 편이다가 41.5%, 보통이 27.5%, 어려운 편이 3%이었다.

측정도구

아동용 측정도구

양육지각. 양육지각은 박영애(1995)가 제작한 양육행동 척도를 김문정(2003)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온정·수용, 허용·방임, 거부·제재의 3개의 하위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부·제재양육 지각에 해당하는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거부·제재 양육행동지각에 대한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이다.

부모갈등지각. 부모갈등에 지각은 Grych등(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를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타당화 시킨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9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갈등내용,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성, 자기비난의 4가지 하위영역의 총 21문항을 사용하였다. 권영옥과 이정덕(1997) 연구에서 갈등지각의 하위영역의 Cronbach's α 는 갈등내용이 .75, 지각된 위협이 .78, 대처효율성이 .69, 자기비난이 .66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갈등내용이 .78,

지각된 위협이 .85, 대처효율성이 .76, 자기비난이 .76이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86이다.

사회불안. 아동의 사회불안은 La Greca (1998)가 제작한 사회적 관계불안척도 18문항과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사회적 관계불안척도(문혜신, 오경자, 2002) 중, 수행불안 소척도 9문항을 합하여 총 2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하위 영역을 보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불안, 일반적 상황에 대한 불안, 수행에 대한 불안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88,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불안은 .74, 일반적 상황에 대한 불안은 .69, 수행 불안은 .87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이 .91,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불안이 .78, 일반적 상황에 대한 불안이 .82, 수행불안이 .92이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94이다.

반추적 반응. 반추적 반응은 김진영(2000)이 제작한 우울한 기분에 대한 반응양식을 측정하는 RDQ를 사용하였다. RDQ는 반추적 반응, 반성적 반응, 전환적 반응 등의 3가지 하위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추적 반응인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반추적 반응양식의 Cronbach's α 는 .83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3이다.

교사용 측정도구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김용래(2000)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초등학교 학생에게 맞게 이점순(2006)이 수정한 것 중, 환경적응의 영역을 제외한 2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영역

은 교사적응, 수업적응, 또래적응, 학교생활적응이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교사적응이 .91, 수업적응이 .87, 또래적응이 .91, 학교생활적응이 .90이며, 총 신뢰도 계수는 .97이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영역의 Cronbach's α 교사적응이 .90, 수업적응이 .90, 학교생활적응이 .90, 또래적응은 .91이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95이다.

절차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의 빈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SPSS 24.0을 그리고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Mplus 6.12(Muthén & Muthén, 1998-2011)를 사용하였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된 연구모형의 각 변인과 변인 내의 관찰변인들이 제대로 측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사전검증 단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Boomsma (2000), Kline(2011)의 제안에 따라 χ^2 값, TLI, CFI, RSMR 그리고 RMSEA를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적합도 지수들의 평가기준은 TLI와 CFI는 .90 이상일 때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RMSEA는 .05 이하이면 양호한 것으로 .05보다 크고 .08미만이면 적절한 적합도로 평가된다(김수정, 박금주, 2013, 재인용). SRMR 값이 .05 이하면 매우 양호한 것으로 .08은 양호한 것으로, .10이하면 대체로 양호한 모델로 평가된다(문수백, 2009). 또한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Bootstrapping은 표본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매개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Shrout & Bolger, 2002).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계수 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부모갈등 지각, 거부·제재 양육지각, 반추적 반응, 사회불안, 그리고

학교적응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갈등지각은 $p < .001$ 수준에서 반추적 반응($r = .425$)과 사회불안($r = .396$)과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p < .01$ 수준에서는 학교적응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 = .168$).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갈등지각($r = .499, p < .001$), 반추적 반응($r = .427, p < .001$), 사회불안($r = .243, p < .001$)과

표 1. 각 하위 척도 간 상관, 평균, 표준편차(N=269)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양육태도														
1. 거부·제재	-													
갈등지각														
2. 갈등내용	.489***	-												
3. 지각된 위협	.259***	.380***	-											
4. 대처효율성	.438***	.336***	.404***	-										
5. 자기비난	.347***	.538***	.254***	.250***	-									
사회불안														
6. 부정적 평가	.309***	.333***	.459***	.261***	.197**	-								
7. 새로운 상황	.056	.072	.186**	.134*	.064	.385***	-							
8. 일반적 상황	.226***	.211**	.182**	.273***	.099	.447***	.515***	-						
9. 수행	.127*	.248***	.204**	.277***	.064	.410***	.516***	.718***	-					
반추적 반응양식														
10. 반추적 반응	.427***	.367***	.293***	.384***	.190**	.484***	.240***	.439***	.404***	-				
학교적응														
11. 교사적응	-.169**	-.063	-.011	-.151*	-.080	-.033	-.044	-.150*	-.137*	-.107	-			
12. 수업적응	-.243***	-.115	-.089	-.182**	-.139*	-.184**	.033	-.211***	-.246***	-.193**	.581***	-		
13. 또래적응	-.257***	-.060	-.030	-.113	-.085	-.159**	.037	-.114	-.090	-.163**	.606***	.513***	-	
14. 학교생활적응	-.287***	-.118	-.091	-.179**	-.115	-.105	-.075	-.073	-.112	-.177**	.520***	.773***	.595***	-
평균	1.62	1.19	1.83	2.47	2.23	2.03	2.68	1.67	1.97	1.92	4.28	3.92	3.99	4.22
표준편차	.62	.35	.61	.51	.46	.97	1.16	.71	.94	.89	.66	.84	.77	.73
최소값	1.00	1.00	1.00	1.40	1.80	1.00	1.00	1.00	1.00	1.00	1.50	1.17	1.50	1.67
최대값	5.00	2.50	3.00	3.67	3.8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왜도	1.58	1.91	.31	.23	1.16	.85	.23	1.30	1.00	1.14	-1.06	-.75	-.36	-1.00
첨도	3.68	2.78	-1.01	-.65	1.16	.00	-.85	1.73	.28	.93	1.28	.15	-.70	.59

*** $p < .001$, ** $p < .01$, * $p < .05$

매우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학교적응과는 매우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 = -.288, p < .001$). 반추적 반응은 $p < .01$ 수준에서 사회불안과는 정적 상관($r = .516$)을, 학교적응과는 부적 상관($r = -.194$)을 나타냈다(표 1 참조).

측정 모델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반추적 반응은 이론적으로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균등 분배하는 방식인 요인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세 개의 문항꾸러미로 구성하였다(이지현, 김수영, 2016; Little, Rhemtulla, Gibson, & Schoemann, 2013). 연구모형의 모델추정가능성과 적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잠재변인인 각 변인과 변인의 하위 영역인 관찰변인 간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모델의 적합도 지수가 다소 양호하지 않았다. 따라서 MI(Modification Indices)값을 확인한 결과, 갈등지각의 하위요인인 갈등내용과 자기비난,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적응과 또래적응, 수업적응과 또래적응 사이에 공분산이 확인되었다.

갈등지각의 하위요인인 갈등내용과 자기비난을 구성하는 문항들 중에서 가령, 갈등내용의 경우, '부모님은 내 학교 일로 자주 다투신다', '부모님은 내가 한 일에 대해 다투신다'와 자기비난의 경우, '부모님은 다투실 때 나 때문에 다투신다고 하신다.' '부모님이 다투시는 것은 보통 나 때문이다' 등의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두 요인 간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또래와 교사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중요하게 관련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의철, 박영신, 2008; Berry & O'Connor,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적응과 또래적응, 수업적응과 또래적응 간 공분산을 설정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분석결과, 각 잠재변인의 측정변인으로 표준화회귀계수(요인부하량)는 대체로 .5를 넘었으며, 잠재변수들 간 관계도 $|.235| \sim |.707|$ 의 상관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와 측정변수사이에 높은 상관관을 보이고, 거부·제재양육과 갈등지각 간 상관관을 제외한 나머지 잠재변수들 사이에서는 다소 낮은 상관관을 보였으므로, 제한적으로 판별·수렴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림 2에 수정모형의 요인부하량과 요인 간 공분산이 제시되었고, 수정 후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다소 향상되었으며, 대체로 양호하였다(표 2 참조).

부모갈등지각, 거부제재 양육지각, 반추적 반응, 사회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모형의 검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나타냈고, 연구모형의 모델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구조방정식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양호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의 검증 결과는 그림 3에 제시되었으며, 경로모형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갈등지각은 거부·제재 양육지각($\beta = .707, p < .001$), 반추적 반응($\beta = .475, p < .001$)과 사회불안($\beta = .391, p < .01$)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사회불안($\beta = -.241,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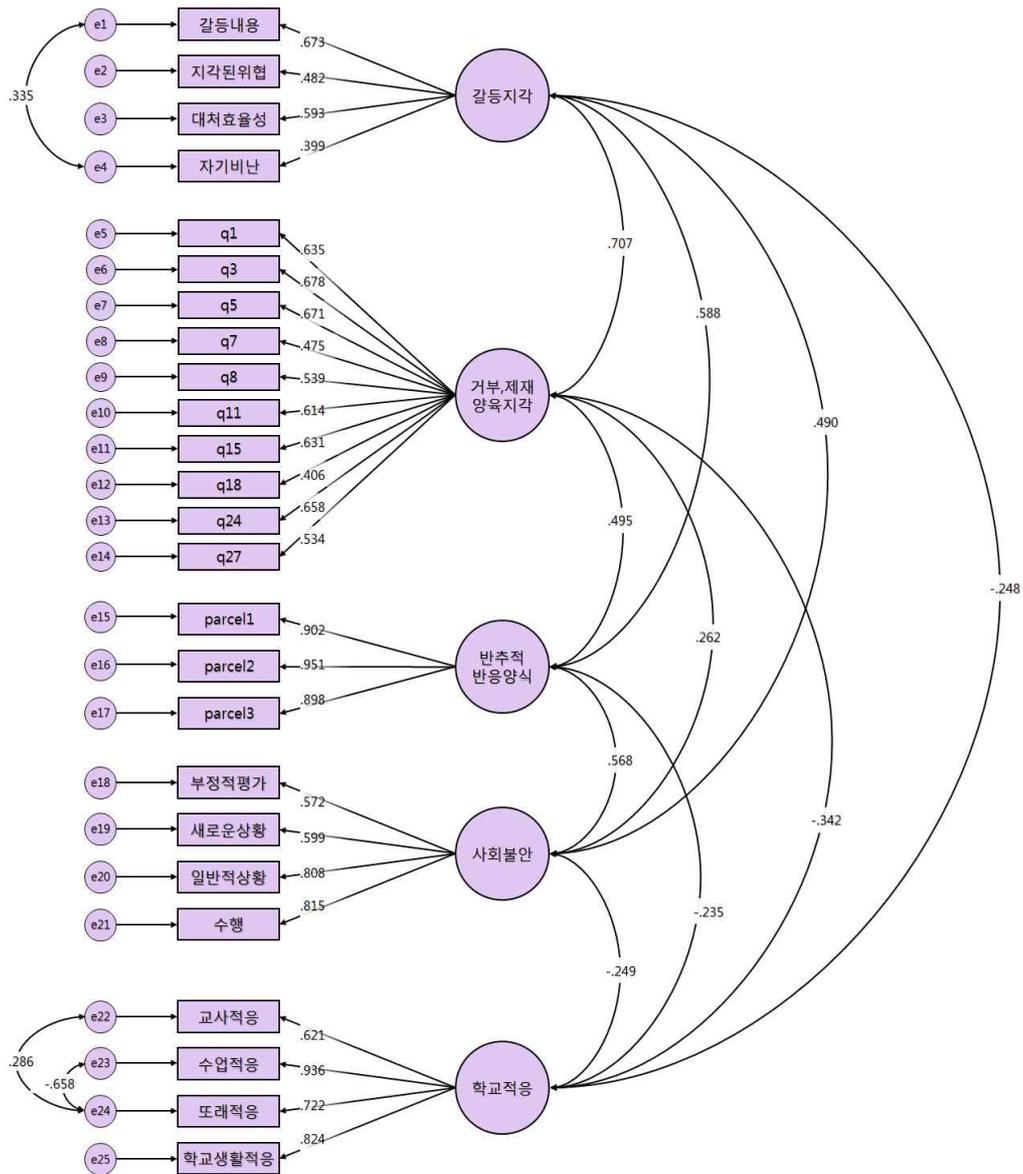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p	RMSEA	SRMR	CFI	TLI
연구모형	529.663	265	.000	.061	.062	.908	.896
수정모형	465.502	262	.000	.054	.059	.929	.919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RMSEA	SRMR	CFI	TLI
465.502	263	.000	.054	.059	.930	.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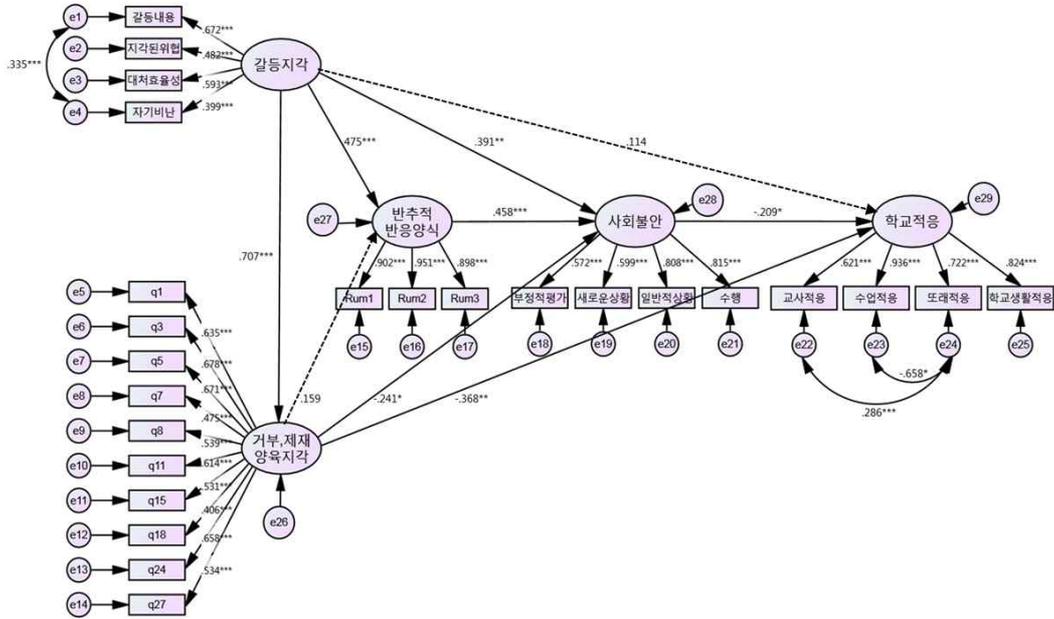


그림 3. 구조모형 검증 결과

표 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t	p
갈등지각 → 거부·제재	1.647	.707	.059	12.060***	.000
갈등지각 → 반추적 반응양식	1.785	.475	.121	3.928***	.000
갈등지각 → 사회불안	.925	.391	.148	2.646**	.008
갈등지각 → 학교적응	.201	.114	.158	.720	.472
거부·제재 → 반추적 반응양식	.257	.159	.115	1.381	.167
거부·제재 → 사회불안	-.245	-.241	.119	-2.026*	.043
거부·제재 → 학교적응	-.278	-.368	.122	-3.026**	.002
반추적 반응 → 사회불안	.289	.458	.082	5.595***	.000
사회불안 → 학교적응	-.155	-.209	.088	-2.372*	.018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05)과 학교적응($\beta = -.368, p < .01$)에 부적인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09, p < .05$). 반추적 반응은 사회불안에 유의하게 정적으로 관련되었으며($\beta = .458, p < .001$), 사회불안은 학교적응에 유의하게 부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09, p < .05$). 학교적응에 미치는 변인들의 직·간접적인 경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갈등지각이 학교적

표 5. 갈등지각, 거부·제재, 반추적 반응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 및 총 효과

경로		직접효과	총간접효과	전체효과
갈등지각	→ 학교적응	.114 [-.237~.558]	-.362* [-.837~-.135]	-.248* [-.411~-.103]
거부·제재	→ 학교적응	-.368* [-.726~-.093]	.035 [-.018~.320]	-.333* [-.603~-.062]
반추적 반응양식	→ 학교적응	-	-.096* [-.224~-.007]	-.096* [-.224~-.007]

[bootstrapping CI 95%]

표 6. 갈등지각, 양육(거부·제재)지각, 반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세부 간접 효과

경로				간접효과 [bootstrapping CI 95%]					
갈등지각	→	거부제재	→	학교적응	-.260* [-.615~-.080]				
갈등지각	→	사회불안	→	학교적응	-.081* [-.452~-.005]				
갈등지각	→	거부제재	→	사회불안	→	학교적응	.036 [.000~.227]		
갈등지각	→	반추적 반응	→	사회불안	→	학교적응	-.045* [-.178~-.005]		
갈등지각	→	거부제재	→	반추적 반응	→	사회불안	→	학교적응	-.011 [-.051~.008]
거부제재	→	사회불안	→	학교적응	.050 [-.002~.324]				
거부제재	→	반추적 반응	→	사회불안	→	학교적응	-.015 [-.067~.011]		
반추적 반응양식	→	사회불안	→	학교적응	-.096* [-.224~-.007]				

응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 = .114, [-.237 \sim .558]$)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 간접효과($\beta = -.368, [-.837 \sim -.135]$)와 전체효과($\beta = -.248, [-.411 \sim -.103]$)는 유의하였다.

거부제재 양육지각이 학교적응에 이르는 직접효과($\beta = -.368, [-.726 \sim -.093]$)와 전체효과($\beta = -.333, [-.603 \sim -.062]$)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 간접효과($\beta = .035, [-.018 \sim .320]$)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추적 반응에서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직접경로가 없기 때문에 총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는 동일하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96, [-.224 \sim -.007]$).

다음으로 갈등지각과 거부제재 양육지각, 반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세부적인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갈등지각이 거부제재를 매개로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beta = -.260, [-.615 \sim -.080]$), 갈등지각이 사회불안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beta = -.081, [-.452 \sim -.005]$), 갈등지각이 반추적 반응 및 사회불안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beta = -.045, [-.178 \sim -.005]$) 각각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제재 양육이 학교적응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반추적 반응이 사회불안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유의 하였다(표 6 참조).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갈등에 대한 지각이 초등 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서 관련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학교적응 관련 변

인들 간 상관을 알아보았고, 두 번째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부모갈등지각, 양육지각(거부·제재), 반추적 반응 및 사회불안, 그리고 학교적응 간 어떠한 직·간접적인 연계성을 보이는 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세 번째로 각 변인들 간 직·간접적 경로 효과를 분석하였다.

각 변인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부모갈등 지각은 반추적 반응 및 사회불안과 매우 높은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의 갈등을 위협적으로 지각하고, 갈등이 자기 때문이라도 지각하며, 그러한 갈등에 잘 대처할 수 없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은 반추를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갈등에 대한 위협적 지각과 반추적 반응과의 연합을 보인 Johnson 등(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맥락이다. 또한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불안은 더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갈등지각이 아동의 사회불안과 관련을 보인 Cummings 등(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된다. 그리고 부모갈등 지각이 학교적응과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갈등에 대한 위협적 지각과 대처효율성에 대한 지각이 부정적인 발달적 결과 및 아동적응과 관련을 보인 연구들(Cummings & Davies, 2010; Grych et al., Grych et al., 2003)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거부·제재 양육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갈등지각과 반추적 반응과는 정적 상관을, 학교적응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의 양육을 거부적이고 제재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부모갈등을 더 높게 지각하였는데, 이는 부모갈등 지각과 부정적 양육태도 간 높은 상관을 보인 이민식(1999)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그리고 거부제재 양육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반추적 반응 수준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과통제적 양육이 청소년기 초기 반추적 사고와 더 관련된다는 Hill 등(2012)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반추적 반응은 사회불안과는 정적 상관을 그리고 학교적응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반추를 많이 하는 아동일수록 사회불안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Clark와 Wells(1995) 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수행이 끝난 후에도 이전 수행 및 상황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과거 수행을 더욱 부정적으로 기억하여 사회불안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반추를 더 많이 할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도 반추가 사회불안을 발생시킴으로써 학교적응에 부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부모갈등 지각은 거부·제재 양육 지각, 반추적 반응, 그리고 사회불안 각각에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갈등을 위협적으로 느끼며, 갈등의 주원인을 자기 탓으로 여기며, 또 그러한 갈등에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아동일수록 부모의 양육을 더 거부적이고 통제적으로 지각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런 아동들은 반추적 사고를 더 많이 하였고, 사회불안도 더 높게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부모갈등이 양육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다는 Cummings(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맥락이며, 부모갈등이 부모자신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양육행동이나 양육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노지형과 송현주(2007)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거부·제재적 양육에 대한 지각은 반추적 반응과는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학교적응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즉 부모의 양육을 거부적이고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양육방식에 대해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는가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더 중요하며 아동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제안한 Osborne와 Fincham(1996)의 연구 그리고 Harold 등(1997)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이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준 결과는 긍정적 양육방식이 아동의 학업수행적응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김수정과 곽금주(2011)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반추적 반응은 사회불안에 유의미하게 정적 관련성을 보였으며, 아동의 사회불안은 학교적응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아동중기 때부터 측정될 수 있는 반추적 사고는 청소년기 초기에 일관되게 부적응적 발달과 관련을 보였는데(Rood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아동 후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초등 4학년 아동들의 반추적 반응이 아동의 사회불안에 정적 관련성을 보였고, 이러한 사회불안은 학교적응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Rood 등(2009)의 연구 결과가 일치되는 양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이른 시기에서 반추적 반응이 부적응적인 심리적 발달과 관련을 보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보다 좀 더 이른 시기부터 반추적 반응이 심리적 발달과 관련을 보인다고 제안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반추와 심리적 발달 간 관련성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시기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

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미치는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경로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갈등지각이 학교적응에 이르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3가지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학교적응과 관련되었다. 첫째 경로는 갈등지각이 거부·제재양육지각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런 결과는 부모갈등이 통제적 양육을 매개로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주었다는 Belsky(1981)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것이며, 부모갈등은 아동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양육행동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Cummings(2001)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양상이다.

둘째 경로로, 갈등지각은 사회불안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부적으로 연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갈등이 아동의 사회불안과 관련을 보인다는 Cummings 등(2003)의 연구, 부모갈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일수록 사회불안이 높았다는 호유나(2005)연구, 그리고 사회불안은 아동기나 청소년기 학업성취도를 낮추고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허재홍, 2006; Stein et al., 1996)에서 나온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된다. 즉 부모갈등을 자기 탓으로 지각하는 아동은 수치심과 자책감을 느끼면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불안은 또래관계 뿐 아니라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학교적응과 부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경로로, 갈등지각은 반추와 사회불안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즉 아동들은 부모갈등을 통해 반추를 발달시키고 이러한 반추는 사회불안을 야기

시킬 수 있어서 결국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부모갈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반추적 사고를 발달시킨다는 Davis와 Forman(2002)의 연구와 부부갈등을 위협적으로 지각할 때 반추적 반응을 하였다는 Johnson 등(2015)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맥락이다. 그리고 반추적 사고는 사회불안을 발생·유지 및 심화시킨다고 주장한 Clark와 Well(1995)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부모갈등에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아동들은 대처 중재로서 반추적 반응에 의존할 수 있으며, 그러한 반추적 반응을 통해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적응적인 심리를 발생, 유지, 그리고 심화시키면서 전반적으로 학교적응을 잘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거부·제재 양육지각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한 결과,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주었다. 즉 부모의 양육을 거부적이고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는 신정희(2010)연구와 일치된다. 또한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면서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는 김수정과 광금주(2010)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추적 반응은 사회불안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반추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수행이 끝난 이후에도 이전 수행과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여 과거 상황을 더욱 부정적으로 기억하게 함으로써 사회불안을 발

생시킬 뿐 아니라 유지·심화시키므로(Clark & Wells, 1995), 결국 학교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모갈등 지각이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로에 대해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부모갈등지각은 거부·제재 양육지각, 반추, 그리고 사회불안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거부·제재양육지각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반추적 반응은 사회불안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아동후기가 시작되는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간 직·간접적인 연계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학교적응 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아동의 심리적 특성으로 반추적 반응을 측정하여 초등 고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또한 아동발달에 일관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부모갈등과 양육 방식에 대한 아동지각을 측정하여 아동의 반추적 반응 및 사회불안과의 관련성 및 학교적응과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미를 두고 있다. 아울러 아동과 아동의 각 담임교사를 통해 관련 변인들을 측정하여 좀 더 객관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에 초점을 둬으로써 변인들 간 세부적인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모형을 근거로 변인들 간 세부적인 관련성에서 또 다른 변인과의 중재 및 조절효과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령,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나 애정적 양육특성이 부모갈등, 반추적 반응 그리고 사회불안을 조절하여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초등 4학년 아동의 반추적 반응양식이 아동의 또 다른 발달적 결과와 일관되게 관련을 보이는 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언급된 연구문제를 추후 분석함으로써 초등 고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이해를 통해 이후 청소년기 학교적응에 유익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옥, 이정덕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기민희, 김미숙 (2014).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초등 4, 5, 6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Vol. 29, 585-612.
- 김문정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 광금주 (2010). 초등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변인 간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3(2), 19-34.
- 김수정, 광금주 (2011). 초기 학교적응과 어머니 양육 간 관계에 대한 아동 기질의 조절효과:부정성 반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155-171.
- 김수정, 광금주 (2013). 3세 아동의 가정환경자

- 극과 발달수준이 7세 아동의 지능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4), 41-57.
- 김애경 (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이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51-372.
- 김용래 (2000). 학교학습동기척도(A)와 학교적응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총*, 17, 3-37.
- 김은향 (2005).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인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의철, 박영신 (2008).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II):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63-109.
- 김진영 (2000). 우울한 기분에 대한 두 가지 내부초점적 반응양식, 반추적 반응양식 대 반성적 반응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지형, 송현주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과의 관계. *심리치료*, 7(2), 75-89.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혜신, 오경자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임상학회지: 임상*, 21, 429-443.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정희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집변태도,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민식 (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면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윤주 (2004).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부모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급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5(2), 435-449.
- 이점순 (2006). 담임교사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묶음: 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
- 조용래 (1998). 역기능적 신념과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허재홍 (2006). 부모양육태도, 완벽주의,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 593-611.
- 호유나 (2005). 청소년의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이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rrindell, W. A., Kwee, M. G. T., Methorst, G., J., Van Der Edne, J., Pole, E., & Moritz, B. J. M. (1989).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of agoraphobic and socially phobic inpatien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5, 526-535.
- Belsky, J. (1981). Early human experience: A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 3-23.
- Berry, D., O'Connor, E. (2010). Behavioral risk,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 development across middle childhood: A child-by-environment analysis of chang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1*(1), 1-14.
- Boomsma, A. (2000). Reporting analyses of covariance structu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7*(3), 461-483.
- Buehler, C., Lange, G., & Franck, K. L. (2007). Adolescents' cognitive and emotional responses to marital hostility. *Child Development, 78*, 775-789.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Schneider(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Cummings, E. M., & Davies, P. T. (2010). *Children, emotional security and marital conflict*. New York: Guilford Press.
- Cummings, E. M., Davies, P. T., & Campell, S. B. (2001). Understanding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Child and Adolescent Behavior Letter, 17*(5), 1-4.
- Cummings, E. M., George, M. R. W., McCoy, K. P., & Davies, P. T. (2012). Interparental conflict in kindergarten and adolescent adjustment: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emotional security as an explanatory mechanism. *Child Development, 83*, 1703-1715.
- Cummings, E. M., Goeke - Morey, M. C., & Papp, L. M. (2003). Children's responses to everyday marital conflict tactics in the home. *Child Development, 74*, 1918-1929.
- Cummings, E. M., Schermerhorn, A. C., Davies, P. T., Goeke-Morey, M. C., & Cummings, J. S. (2006). Interparental discord and child adjustment: Prospective investigations of emotional security as an explanatory mechanism. *Child Development, 77*, 132-152.
- Dagan, K. A., & Fox, N. A. (2007).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disorders: Multiple level of a resilience process. *Developmental and Psychology, 64*, 215-230.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avies, P. T., Forman, E. M., Rasi, J. A., & Stevens, K. I. (2002). Assessing children's emotional security in the interparental relationship: The Security in the Interparental Subsystem Scales. *Child Development, 73*, 544-562.
- Fincham, F. D., Grych, J. H., & Osborne, L. M. (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8-140.
- Gerard, J. M., Buehler, C., Franck, K., & Anderson, O. (2005). In the eyes of the beholder: Cognitive appraisals as mediators of the association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youth mal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 376-384.
- Goeke-Morey, M. C., Cummings, E. M., Harold, G. T., & Shelton, K. H. (2003). Categories and continua of destructive and constructive

- marital conflict tactics from the perspective of U.S. and Welsh childr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 327-338.
- Goeke-Morey, M. C., Papp, L. M., & Cummings, E. M. (2013). Changes in marital conflict and youths' responses across childhood and adolescence: A test of sensitiz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5, 241-251.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H., & Fincham, F. D. (1993).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 215-230.
- Grych, J. H., Fincham, F. D., Jouriles, E. N., & McDonald, R. (2000).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development: Testing the mediational role of appraisals in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71, 1648-1661.
- Grych, J. H., Harold, G. T., & Miles, C. J. (2003). A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appraisals as mediators of the link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4, 1176-1193.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rold, G. T., Fincham, F. D., Osborne, L. N., & Conger, R. D. (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3, 333-350.
- Hilt, L. M., Armstrong, J. M., & Essex, M. J. (2012). Early family context and development of adolescent ruminative style: Moderation by temperament. *COGNITION AND EMOTION*, 26, 916-926.
- Huston, A. C., & Ripke, M. N. (2006). Experience in middle and late childhood and children's development. In A.C. Huston & M. N. Ripke(Eds.), *Developmental contexts in middle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hnson, D. P., Carr, F. A., & Whisman, M. A. (2015). Inter-parental Conflict and Ru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8(1), 1-10.
- Kitzmann, K. M., & Cohen, R. (2003). Parents' versus children's perceptions of interparental conflict as predictors of children's friendship qual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20(5), 689-702.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 LaGreca, A. M. (1998). *Manual for the social anxiety scal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Miami, FL: Author.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 Long, N., Slater, E., Forehand, R., & Fauber, R. (1988). Continued high or reduced interparental conflict following divorce:

- Relation to young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67-469.
- Nolen-Hoeksema, S., Wisco, B. E., & Lyubomirsky, S. (2008). Rethinking rumination.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 400-424.
- Osborne, L. N., & Fincham, F. D. (1996). Marital Conflict, parental-child relations and child relations: Does gender matter. *Merrill Palmer Quarterly, 42*, 48-75.
- Perry, N. W., & Millimet, C. (1977). Child-rearing antecedents of low and high anxiety eighth-grade children. In C. D. Spielberger & I. G. Sarason (Eds.), *Stress and Anxiety, vol.4*. (pp.189-204). New York: Wiley.
- Rhoades, K. A. (2008). Children's responses to interparental conflict: A meta-analysis of their associations with chil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9*, 1942-1956.
- Rogers, M. J., & Holmbeck, G. N. (1997). Effects of interparental aggression on children's adjustment: The moderating role of cognitive appraisal and cop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 125-130.
- Rood, L., Roelofs, J., Bogels, S. M., Nolen-Hoeksema, S., & Schouten, E. (2009). The influence of emotion-focused rumination and distraction on depressive symptoms in non-clinical youth: A meta 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9*, 607-616.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Spasojevic, J., & Alloy, L. B. (2002). Who becomes a depressive ruminator?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ruminative response style.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6*, 405-419.
- Stark, K. D., Humphrey, L. L., Crook, K., & Lewis, K. (1990). Perceived family environments of depressed and anxious children: Child's and maternal figure's perspectiv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527-547.
- Stein, M. B., Walker, J. R., & Forde, D. R. (1996). Public speaking fears I a community sample: Prevalence impact on functioning and diagnostic classif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 169-174.
- Vandewater, E. A., & Lansford, J. (1998). Influence of family structure and parental conflict on children's well-being. *Family Relations, 47*(4), 323-330.
- 1차원고접수 : 2018. 10. 11.
수정원고접수 : 2018. 12. 06.
최종게재결정 : 2018. 12. 07.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al Conflict
on the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yle, Rumination and Social Anxiety**

Kim SuCheung

Humanities Social Research Institute
Catholic University

Yoonkyung J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Park HyunSik

Unyu Elementary School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and parenting style, their rumination, social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A total of 280 children (4th year) and 10 homeroom teachers participated. Each child completed questionnaires on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perception of parenting style, rumination, and social anxiety. Children's school adjustment was measured by their homeroom teachers' reports. The results showed that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was highly correlated with rumination and social anxiety,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school adjustment. In addition, parenting style high in rejection and control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Rumination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anxiety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revealed that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influenced their school adjustment and was mediated by parenting style high in rejection and control, rumination and social anxiety. In addition, our results showed that parenting style high in rejection and control directly influenced school adjustment, and children's rumination influenced school adjustment, mediated by their social anxiety.

Key words : parenting conflict, parenting style high in rejection-control, rumination, social anxiety, school adjustment